

지역 청년 사업에 5년간 50억 지원

전국 21개 청년단체 선정

삼성생명

삼성생명이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 청년활동가 지원사업'에 올해부터 5년간 총 50억원을 지원한다.

삼성생명은 지역 청년활동가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전국 21개 청년 단체에 지역 문제 해결 프로젝트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10개 지자체에서 선정된 청년단체는 올해 8월 공모 이후 서류 심사, 현장 실사, 면접 심사를 통해 선발됐다.

이들 단체에는 1개소당 최대 45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단체 활동에 유용한 교육과 외부 전문가 컨설팅, 네트워킹 등 사후 관리도 함께 제공된다. 삼성생명은 이 사업에 올해부터 5년간 총 50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삼성생명은 다양한 사회공헌을 추진 중이다.

송상진 삼성생명 사회공헌단장은 "청년의 힘으로 지역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금 뿐 아니라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내년 대출 규제, 고소득-고신용자에 집중

금감원, '내년 가계대출 총량 4.5% 관리' 지침 전달

DSR 규제 강화-전세자금대출도 다시 포함... '대출 한파' 지속
금융권, 인센티브 확보 위해 '중·저신용자 대출' 영업 나설 수도

내년에는 대출 규제가 고소득·고신용자에게 집중되고, 중·저신용자의 대출 기회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가계대출과 관련한 당정의 언급, 은행권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면 대출 규제가 고소득·고신용자에게 집중되고, 중·저신용자의 대출 기회는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면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중순 은행들에 내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 제출을 요청하면서 내년 은행권의 가계대출을 평균 4.5%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지침을 각 주요 시중은행에 직접 유선으로 전달했다.

이에 따라 같은 달 26일까지 5대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 세 곳은 4.5%, 두 곳은 약 5%를 내년 증가율 목표로 제시했다.

5대 시중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지난해 12월 말 대비)은 11월 말 기준 KB국민은행 5.43%, 신한은행 6.30%, 하나은행 4.70%, 우리은행 5.40%, NH농협은행 7.10% 수준이다.

12월에 이르면 5대 은행의 단순 평

균 증가율이 6%대에 이를 전망이다. 은행은 내년 증가율을 이보다 1.5%p 낮은 4.5% 범위에서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1월부터는 차주(대출자)별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강화된다. 2단계 DSR 규제에서는 총대출액(신정액 포함)이 2억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DSR이 40%를 넘는지 따지기 시작한다.

DSR 산정시 신용대출 상환 만기도 7년에서 5년으로 짧아져 대출자 입장에서 대출 여력이 더 줄어든다. 내년 7월 3단계까지 시행되면 총대출액이 1억원만 웃돌아도 DSR 규제를 받는다.

당국과 은행권은 대출 실수요자 대책의 하나로 다음 달부터 결혼, 장례 등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면 연 소득을 넘는 신용대출도 허용하기로 했지만, 특별대출 역시 DSR 산정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대출한도 증액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은행권 분석이다.

게다가 내년부터 다시 전세자금대



가계대출 한시적 신규취급 중단 안내. 사진=시장경제DB

출도 은행 가계부채 총량 관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은행은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9월 이후 당국과 은행권이 강하게 가계대출을 억제하면서 실수요 세입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당국은 "올해 4분기 신규 전세자금대출은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해가 바뀌어 내달 1일부터는 한시적 조치가 끝나고 다시 전세자금대출과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은 10월 말보다 3조원 늘었다. 이 중 전세자금대출이 67%인 2조원을 차지했다. 올해 전체 평균으로도 5대 은행에서 늘어난 가계대출

의 절반가량은 전세자금대출이었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4.5% 내에 맞추는 일은 은행으로서 쉽지 않은 과제인 셈이다.

한편 이 같은 대출 한파 속에서도 지금까지 은행권 접근이 어려웠던 중·저신용자의 가계대출 문은 내년에 다소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고소득·고신용자들은 상대적으로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정책 서민금융 상품에 대해서 최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대출 중단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저신용자 대출, 정

책 서민금융) 대출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12월 중 확정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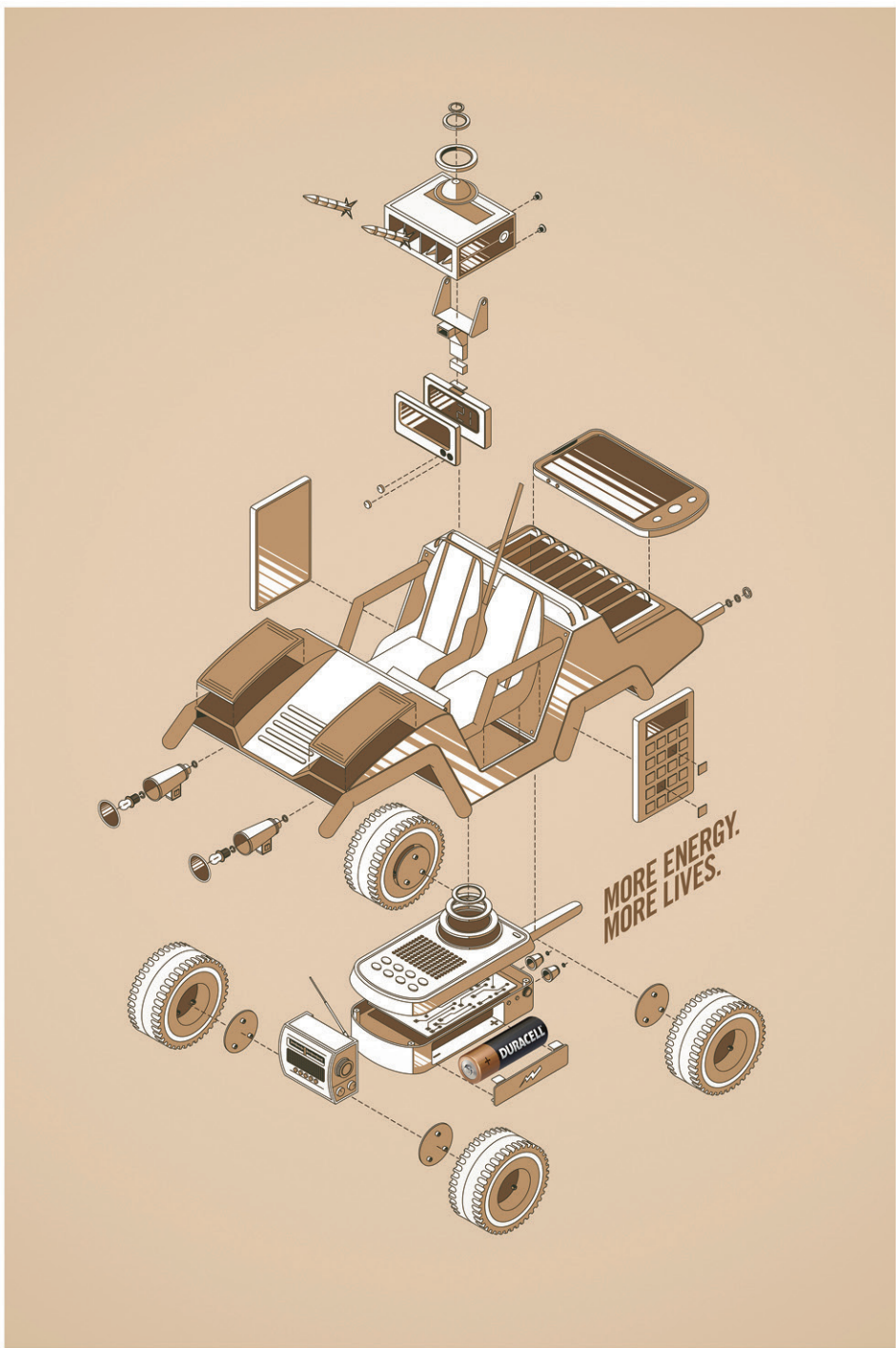
지난 4~5월 당국의 자료 등에 언급된 중·저신용자는 대체로 '신용평점 하위 50%(신용등급 4등급 이하)' 대출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중은행은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큰 중·저신용자 대출(대출금리 약 5~6.5% 수준)을 거의 취급하지 않았지만, 만약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총량 관리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면 중·저신용자 대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성재용 기자 jay1113@newdailybiz.co.kr



Cannes Lions 수상작 지면 전시



보험업계, "2031년까지 누적 적자 112조, 손해율 166.4%"
당국은 10% 초반... 코로나 악재·물가상승에 난색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의 기싸움이 팽팽하다. 업계는 10% 중후반대 인상을 적용으로 타협점을 찾는지 지켜보는 분위기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내년 1월 실손 갱신을 앞둔 고객들에게 20% 내의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이달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잠정적 인상률로, 이달 말경 최종 인상률이 결정되면 안내문이 재발송된다.

보험업계는 지난 9월말 기준 실손 손해율이 131%를 기록, 더이상 적자폭을 감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손으로 인한 보험업계 적자는 지난해 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손보업계는 올해 적자가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에 대한 소수 과잉 의료 이용을 근본적 원인으로 꼽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비급여 관리 기준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실손 손해율 초과분인 30% 인상 요구 목소리도 나왔지만, 고객들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0%의 절충 요율을 정한 것"이라며 "그동안 평균 10%대의 인상률에 그치는 등 손실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코로나 등 경기상황을 고려해 보험사들이 적자를 감내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코로나 장기화에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다, 내년 대선 변수등을 고려해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에도 보험업계는 1세대와 2세대 '표준화 실손보험'에 대해 20%, 3세대는 10%대의 인상을 주장했지만 당국 지침에 따라 평균 10~12% 인상률을 확정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보험료 산정은 시장서 결정되는게 맞다면서도, 이를 지켜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 원장은 지난 16일 '손보업계 최고



금융감독원. 사진=시장경제DB

경영자(CEO)와의 간담회' 직후 "실손보험은 3900만명이 가입해 요율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한다"며 "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2월 안에 내년도 인상률이 결정되야 함에 따라, 이달말까지 양측의 평행선이 지속될 경우 올해보다 소폭 인상된 10%중후반대에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거론된다"며 "해마다 실손손실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만큼, 당국도 보수적 인상률만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상현 기자 jsangh@newdailybiz.co.kr

‘인터넷 파킹통장’ 어디가 좋나... 1억미만 토스·3억은 케이뱅크

토스뱅크 2% 파킹통장 등장에 한도·금리 치열
케이뱅크 3억원까지 연 0.8%→1.0% 금리 올려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 출범으로 촉발된 수시입출통장, 이통파킹통장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단 하루만 맡겨도 단일 금리를 받을 수 있어 잠시 갈 곳을 잃은 시중 자금을 둘러싼 유치전이 은행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10월 출범과 함께 금액·납입기간에 관계없이 연 2.0%의 파격적인 혜택을 약속했다.

다만 예대금리치에 따른 역마진이 발생하자 1억원 이하에 연 2.0%의 금리를 주기로 한 발 물러섰다.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서는 연 0.1%의 금리가 적용된다.

1억원 이하의 예비자산을 보관하기에는 토스뱅크의 금리가 2%로 가장 높은 편이다.

토스뱅크는 금융당국이 가이드한 대출한도 5000억원을 빠르게 소진해 두달째 대출이 멈춘 상태다. 예금잔고는 2조원이 넘게 차 있으나 대출 영업이 중단돼 역마진에 따른 손실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역시 한도와 금리를 올리며 파킹통장 경쟁



에 바짝 추격하는 양상이다.

케이뱅크는 전일부터 파킹통장인 플러스박스 금리를 0.2%p 인상에 연 1.0%로 제공한다. 한도는 최대 3억원로 인뱅들중 가장 많다. 또 단일 금리를 제공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토스뱅크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최유경 기자 orange@newdaily.co.kr

2014년 Press Lions

Bronze Lion Campaign

Title: Car
Client: Duracell
Agency: PUBLICIS LIMA

자동차
듀라셀
퍼블리시스 리마